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9월 ~ 10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수입식품, 허가, 통관, 식품안전, FSSAI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수입식품, 허가, 통관, 식품안전, FSSAI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1. 14.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수입식품 개정안 발의

2016. 5. 11.
인도, '납라면' 사태 이후
수입식품 규정 강화

2016. 6. 15.
인도, 수입식품 안전
위해 안전관리자 파견

2016. 10. 3.
인도 세관, FSSAI의
허가 후 통관 진행

핵심이슈
도출

“인도, 수입식품 통관 기준 강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인도, 수입식품 통관 기준 강화

2016년 10월 4일, 인도의 일간지 The Pioneer는 인도 세관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개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 세관에서는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화물 인도지시(release order)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인도의 수입식품 통관은 FSSAI에서 세관으로 파견한 식품검역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통관이 승인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통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인도 세관 당국은 최근 식품안전표준청과의 회담을 열어 수입된 식품의 적시 통관과 품질 검사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당초 회담의 목적은 FSSAI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논하기 위함이었으나, 자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결과 보고서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다만 FSSAI에서 수입식품을 검사할 때 샘플 채취와 검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매년 9~10월, 최대 명절인 디왈리(Diwali) 축제를 맞이하여 소비재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세관은 축제에 사용될 과자와 초콜릿 등의 수입 간식들로 붐비고 있다. 일부 제품은 FSSAI의 적절한 검사 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는 지난 1월, 식품안전법을 현대 기준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납 성분 검출로 수입 라면이 리콜 조치된 이후 수입식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최근 인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문제에 대비하여 통관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화물인도지시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통관 시간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출업체들은 시장에서의 유통 기한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중금속 검출로 문제가 된 수입산 라면에 대해 인도 당국의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의 제조업체는 인도의 식품안전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